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전라 연기 영화에 꼭 필요한 장면이었죠”

영화 '사생결단' 통해 선머슴 이미지 탈피한 배우 주자현

“좋은 배우와 연기해 행복... 가슴 따뜻한 영화 찍을래요”



‘이라다 영영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닐까’ 한 동안 주자현(27)은 이런 고민에 휩싸였다. 드라마 ‘카이트’의 선머슴 같은 여자애로 단숨에 이름과 얼굴을 알렸지만 그 이미지의 굴레는 생각보다 오래 그를 묶어왔다. 주자현은 ‘사생결단’에서 그는 명품 매장을 운영하는 지영 역을 맡았다. 주자현의 연기는 보는 이들에게 화제가 됐다. 마약에 중독돼 있는 여자를 그리기 위해 가슴 뿐 아니라 전라 노출을 서슴지 않았다. 노출만이 눈에 띄는 게 아니다. 실제 마약중독 경험자와 긴 시간 인터뷰를 통해 온몸으로 만들어낸 연기, 즉 약기를 이 떨어질 때 멈출하는 공포감, 상도하의 마지막 통화 장면 등은 연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의 열의를 쉽게 감지하게 만들었다. “솔직히 전 시나리오를 볼 줄 몰라요. 그저 만나고 싶었던 분들 보겠다는 생각으로 오디션에 임했습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여성스럽게 나타

난 그를 보고 제작자와 최고 감독이 노출 장면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노출 장면은 지영이를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영화 ‘사생결단’을 설명하는 장면이었어요. ‘카이이 신이 없어도’가 아니라 이를 통해 영화가 표현되는데 어찌 안하겠어요. 그리고 두 분에게 ‘저 의리는 지키는 애다’라고 말했죠.” 이처럼 자신이 적극적으로 작품에 나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황정민과 류승범, 두 남자 배우 때문이었다. “영화를 보고 나니 ‘정말 연기 잘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촬영장에서 매번 느꼈어요. 작품 속에 완전히 빠져 각기 배역에 탁월한 설정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뭔가를 끄집어내니 저는 거만 있어도 빨리 들어갔습니다. 두 분의 그런 열의 덕분에 저 역시 빛나게 된 것 같아요.” 그는 ‘사생결단’에 참여하면서 뿌듯함과 용기를 얻었다. “이런 영화에 함께 했다는 점만으로도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사람 냄새 나는 역할, 좋은 작품 하고 싶네요.”

Living TV 신나는 댄스 세상-라틴 댄스(12시)
국내의 크고 작은 여러가지 댄스 대회 소개하고, 각종 댄스 동호회 탐방과 댄스스포츠 강화를 통해 시청자들이 댄스스포츠에 대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찾아온 엔리케 쿠티니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의 탱고 팬들을 찾았다. 경쾌하고도 정교한 테크닉으로 '건반의 마술사'로 불리는 엔리케 쿠티니의 연주에 맞춰 바이올린과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댄서, 가수가 탱고의 역사를 설명한다.

케이블·위성TV 27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MBC MOVIES, OCN, SBS, EBS1, KBS KOREA,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PBC 광주광역시방송
FM 99.9 MHz / FM 99.5 MHz
www.kipbc.com

TBN 교통방송
www.kipbc.com

BBS 불교방송
www.kipbc.com